

문화특집



정읍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정읍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기념식이 1일 순정축합 한우명품관 2층 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 의장을 비롯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클라리넷 연주 등 식전공연에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사회복지유공자 12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기념식에 이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80여명은 충주시 한국지하철연수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지난 1년 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은 각자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레크리에이션과 특강, 산책 등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간 화합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생기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고령화 문제가 사회복지 수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생애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당화클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해당화클럽 회원들이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주거환경개선사업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부안해당화클럽 김정남을 비롯하여 회원들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도배 장판 뿐만 아니라 가구들을 새롭게 바꾸고 주변 잡초를 뽑는 등 대청소를 벌여 얼마남지않은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김정남회장은 "어르신은 밝은 미소속에 회원들의 봉사하는 손길이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맞춤형급여관련 직원표창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맞춤형급여 1주년을 맞아 제도 정착 및 운영과정에 우수한 성과를 낸 사회복지공무원 19명을 선정하여 시상상을 수여했다.

김제시 101명의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맞춤형 1주년 국민기초생활보장 16주년을 맞아 2012년부터 임용되어온 신규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업무 연관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포상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임용 4년 미만의 8, 9급의 젊은 공무원들로 선배공무원들의 적극적 업무차리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여,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입은 읍면동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위해 7개 분야 대책 수립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즈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 등 민생안정을 위한 환경, 물가, 교통, 도로, 재난, 상수도, 의료분야 등 7개 분야에 각 부서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김제시를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이 병·의원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병·의원 43개소, 약국 37개소, 공공보건기관 40개소 등 120개소를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으로 지정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평선봉사대(회장 김정화)는 김제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김제

시 농·특산물과 제18회 김제지평선 축제 개최(9. 29~10. 3)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아울러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끼도록 무료 차(茶) 나눔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더 행복한 김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초청강사로 나선 정읍시 고문변호사인 김성희 변호사는 이날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법률쟁점사항을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직자 청렴특강 실시

정읍시, 6급 이상 250여명 대상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읍시가 이와 관련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6급 이상 공직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초청강사로 나선 정읍시 고문변호사인 김성희 변호사는 이날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법률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해를 높임은 물론 청렴한 공직자상과 청렴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금액을 3·5·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는 청렴교육과 더불어 앞으로도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적극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시 산하 모든 공직자 모두 김영란법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은 물론 모든 부문에 있어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청렴한 정읍 만들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방법시설 대폭 개선 · 여성범죄 30% 감소

김제경찰서, 3개월간 '여성안전 특별 방법 활동' 결과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 여성안전 특별 방법 활동 기간 중 5대 범죄가 전년 대비 25.4% 감소하는 등 대 여성범죄 및 여성불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경찰서는 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에 나타난 불안신고 지역에 대해 민·관·경 합동 진단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다양한 방법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여성 범죄 예방'을 기본 목표로 여러 가지 치안시책을 발굴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밝은 김제 만들기'를 위해 김제시와 협조 12여의 예산을 들여 13개 공원 및 김제시내 가로등과 보안등을 모두 LED등으로 교체, 조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또한 공원에 여성화장실에 112연계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안심귀갓길에 울라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였고, 특히 여성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이 불안에 대한 장소와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별 간담회 및 과거 범죄 분석을 토대로 취약요소 110여곳을 선정 특별 순찰을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치안 활동을 강화

하였다.

이에따라 3개월간 여성불안신고 51건을 접수하여 상담 및 입원보호조치 16건, 순찰경호 18건, 시설개선 13건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동기간 대비 성범죄는 30%, 민집탐이 등 절도는 25%가 감소하는 등 대 여성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대규 서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여성범죄 특별치안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김제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새마을지도자회 워크숍

김제시 교월동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이창래)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총북 단양과 문경일원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연초 백귀나누기 행사 로부터 '동민의 날 자원봉사활동' 및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까지 2016년을 열심히 달려온 회원들에게 감사나눔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회원상호간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양과 문경의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고 선진 농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 등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의 마지막

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 새마을지도자회의 방향설정이라는 주제로 회원 자유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회원들은 이번 워크숍기간에 방문하는 휴게소 유적지마다 홍보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다가오는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이창래 회장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들 상호간 더욱 결속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자살 예방위한

'소중한 생명' 사진공모전 시상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9월10일 세계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관심 유도과 긍정적 에너지 효과를 주고자 친숙한 사진 매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나타내는 메시지의 사진을 주제로 하는 "소중한 생명" 사진공모전을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5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은 김산초등학교 6학년 박하은, 그리고 우수상인 명, 장려상 3명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콜레라는 보통 음용수 섭취로 발생하며 잠복기는 보통 2~3일 정도이다.

부안보건소, 콜레라 예방 총력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경남 거제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자 부안군 보건소가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콜레라 발생을 사전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안전한 식수를 마시고 오염된 음식물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콜레라는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로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 대변이나 구토 물 등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 정도이고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기도 한다.

한편 군 보건소는 비브리오패혈증과 콜레라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개 항포구(적포·공항·모항·작당·왕포·곰소)의 해수·하수·수족관수 등에서 2회(24건)의 가검물 수거 검사를 했었으며 지금까지 콜레라균이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부안군 보건소는 병·의원과 보건지소에 콜레라 의심환자 발생 즉시 신고토록 당부했으며 95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망의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방역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조선 출판·인쇄문화 '태인방각본' 조명

정읍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조선시대 민간 출판인쇄문화와 독서열풍을 이끌었던 태인방각본(泰仁坊刻本)을 집중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제9회 특별기획전으로 마련한 '조선출판인쇄문화의 Pandora, 태인방각본'이 그 것이다. 오는 5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갖고 6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들어가는 이번 전시회는 11월 6일까지 이어진다.

태인 방각본(坊刻本)은 조선시대 태인지역에서 민간 출판업자가 제작 및 판매를 통해 만든 책을 말한다.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깊은 태인지역에서 조선후기에 성행한 태인 방각본의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전에는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와 정읍시청 유훈 담당, 방각본에 대한 고견을 주신 전 북대 이태영 교수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전시에서는 또 이 지역 출신으로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고려시대 '불조지지심체요철'을 정리한 고려 말의 승려 백운화상 정운스님을 기리기 위한 유물도 선보인다.

전시유물은 태인 방각본 111점과 태인 옛 책 30여 점, 다른 지역의 방각본 30여 점, 그리고 지지 관련 유물 5점이다.

전시회는 총 4부로 구성된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태인방각본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깊이 있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깊은 태인지역에서 조선후기에 성행한 태인 방각본의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에서

정읍시 4곳 우수 마을 선정 · 표창 받아

산림청 주관으로 시행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서 정읍의 4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돼 산림청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북면 동신마을과 입암면 원등마을, 영원면 탐탐마을, 칠보면 검단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고 동신마을 이장 김종진씨가 개인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마을이 서약마을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99%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4개 마을은 산불 취약지역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서약을 하고 논과 밭두렁면 검단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고 동신마을 이장 김종진씨가 개인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마을이 서약마을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99%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4개 마을은 산불 취약지역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서약을 하고 논과 밭두렁면 검단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고 동신마을 이장 김종진씨가 개인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마을이 서약마을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99%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4개 마을은 산불 취약지역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서약을 하고 논과 밭두렁면 검단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고 동신마을 이장 김종진씨가 개인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적 방식에서 벗어나